

# 沙溪 金長生の 『近思錄』 校勘에 관한 研究\*

A Textual Bibliographic Study on the *Geunsarok* of  
Sagye Kim Jang Saeng

우 정 훈 (Woo, Jung-Hoon)\*\*

송 일 기 (Song, Il-Gie)\*\*\*

## ◁ 목 차 ▷

- |                          |            |
|--------------------------|------------|
| 1. 서론                    | 4. 교감 분석   |
| 2. 사계 김장생의 「근사록」<br>교감배경 | 4.1 當作 유형  |
| 3. 「근사록」의 현존본 및 교감저본     | 4.2 疑作 유형  |
| 3.1 현존판본                 | 4.3 他本作 유형 |
| 3.2 교감저본                 | 5. 결론      |
|                          | <참고문헌>     |

## < 초 록 >

이 연구는 사계 김장생의 『근사록석의(近思錄釋疑)』에 수록된 『근사록오자교정(近思錄誤字校正)』의 내용을 중심으로, 현존하는 『근사록』 판본과 재교감(再校勘)하여 분석한 것이다. 사계는 『근사록오자교정』에서 모두 44건의 항목을 지적하였으며, 當作유형 25건, 疑作유형 8건, 他本作유형 11건으로 구분되었다. 이 중 31건의 오자와 2건의 첨자가 발견되었다. 사계가 오자교정으로 지적한 문자를 분석한 결과, 오자가 생긴 이유로 ① 고려본 이래로 무비판적으로 전승되어 오자가 생겨난 경우, ② 청량서원본에만 오각이 발생한 경우, ③ 사계가 생각하기에 문맥의 흐름상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여 교정한 경우 등으로 구분되었다. 다른 판본과 비교하여 오자교정이 많이 이루어진 판본은 초주혼입 乙本, 초주대자목판본, 점필서원본이었다. 이들은 판본의 형태를 기준으로 계통을 이루고 있는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 계통과도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교의 방법을 통하여 증명이 되었다.

要語: 『근사록』, 청량서원, 『근사록석의』, 김장생, 『사계선생유고』, 『사계전서』, 교감

\* 이 논문은 2011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memory81@gmail.com) (제1저자)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gsong@cau.ac.kr) (교신저자)

접수일: 2012년 5월 20일 최초심사일: 2012년 6월 5일 심사완료일: 2012년 6월 16일

<ABSTRACT>

This study is for the Textual Bibliographic study of *Gensarok Interpretation* by Sagye Kimjangsaeng, including *Correcting of miswords for Gensarok*, and based on the Textual contents, by using the method of comparative analysis through the remaining book edition.

Sagye points out 44 items and classifies 25 items of correct word types(當作유형), 8 of suspect word types(疑作유형) and 11 of different version types(他本作유형). Among these items, 31 misswords and 2 add words were investigated.

The reasons for the misswords are divided into mainly 3 as followed;

- ① The case that it has been succeeded since Goryeo edition.
- ② The case which is misprinted on Chungryang Seowon edition only.
- ③ The case which is judged by Sagye to correct in another context.

As contrasted with other editions, the most used misprinting edition is the first kapinja mixed edition(version 乙)(초주혼입乙본), Woodblock edition of slightly larger size than the first Kapinja(초주대자목판본), Jeompil Seowon edition(점필서원본). These editions have same results to an edition form analysis, therefore, the result of this Textual Bibliographic study is more firmly proved.

Key words: *Gensarok*, Chungryang Seowon, *Gensarok Interpretation*(釋疑), Kimjangsaeng, *Sagye yugo*, *Sagye jeonseo*, Textual bibliography

## 1. 서론

이 연구는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이 「근사록(近思錄)」집해본(集解本)의 오자를 교정한 「근사록오자교정(近思錄誤字校正)」을 중심으로 연구자가 현존하는 「근사록」 제판본(諸板本) 상에서 오자를 재교감 하여 그 현상을 고찰한 논문이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근사록」은 주희(朱熹)와 여조겸(呂祖謙)이 학문의 중심문제와 일상생활에 요긴한 부분들을 뽑아 편찬한 일종의 성리학 입문서이다. 「근사(近思)」는 「논어(論語)」 <자장(子張)>편의 “널리 배우고 뜻을 돈독히 하며, 절실하게 묻고 가까운 일에서 생각한다 하면, 인(仁)은 그 가운데 있다”는 구절에서 따온 것이다. 주희는 「주자어류(朱子語類)」(卷105)에서 “<육경(六經)>을 알려면 <사서(四書)>를 읽어야 하고, <사서>를 알려면 「근사록」부터 읽어라”라고 권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근사록」은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성리학의 교본으로써 유학자들이 애독했던 필독서였다. 1175년 주희와 여조겸에 의해 「근사록」이 편찬된 이후, 중국에 수많은 주석서가 출현하였으며 그 가운데 1248년에 편찬된 섭채<sup>1)</sup>의 「근사록」집해본이 우리나라에 전해지게 되었다. 이후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대부분의 판본이 섭채의 집해본일 정도로 널리 유통되었으며, 많은 판본이 간행되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조선의 성리학자들에 의한 주석서가 등장하였으니, 그 대표적인 저술이 바로 사계의 「근사록석의(近思錄釋疑)」이다. 이 「근사록석의」는 사계가 「근사록」을 공부하면서 난해한 곳은 선유의 학설을 인용하고 때로는 자신의 견해를 붙여 저술한 것으로, 수몽(守夢) 정엽(鄭曄)의 도움을 받아 편찬이 되었다.

「근사록오자교정」은 「근사록석의」의 앞부분에 나타나 있다. 현재 「근사록석

1) 葉采의 ‘葉’은 ‘섭’ 또는 ‘엽’으로 발음이 된다. 외래어 표기법 4장2절에 의하면, 동양의 인명은 중국인의 경우 과거인과 현대인을 구분하되, 과거인은 종전의 한자음대로 표기하고, 현대인은 원칙적인 중국어 표기법에 의거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성씨}의 뜻을 가지고 있는 ‘섭’으로 표기하였다.

의』는 2가지 형태로 전해지고 있다. 첫 번째는 문집인 『사계선생유고(沙溪先生遺稿)』에 별고 형식으로 붙여 전해지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의 편집을 거쳐 단행본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 있다. 현재의 『근사록석의(近思錄釋疑)』라 함은 대부분 송시열의 편집을 거친 14권 4책의 단행본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논문의 대상본은 송시열의 편집본이 아닌, 『사계선생유고』에 별고로 포함된 『근사록석의』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사계의 문집에 별고에 포함된 『근사록석의』에 『근사록오자교정』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계가 『근사록』의 문자가 문장의 뜻에 합당치 않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글자 혹은 다른 판본들에 잘못 판단된 글자들을 찾아내어 지적한 것을 정오표(正誤表)를 작성하여 별도로 수록하였던 것이다.

현재 조선시대에 간인(刊印)된 근사록 판본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현전본이 모두 밝혀진 상황이다.<sup>2)</sup> 따라서 사계가 지적한 오자교정 항목과 현전하는 판본을 다시 대교(對校)해 보면, 본문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현존 판본의 선후 계통을 구분함에 있어 판본간의 상관관계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 2. 사계 김장생의 『근사록』 교감배경

이 장에서는 사계가 『근사록』을 교감한 배경에 대해 서술하였다. 사계 김장생은 명종 3(1548)~인조 9(1631)의 인물로 구봉(龜峯) 송익필(宋翼弼)과 울곡(栗谷) 이이(李珥)의 문하생이다.

그는 1560년 송익필로부터 <사서>와 『근사록』 등을 학습한 이후 20세 무렵에 울곡의 문하에 들어갔다. 1578년 창릉참봉(昌陵參奉)이 되고, 1581년 종계변무

2) 우정훈, “『近思錄』集解本の 板本 研究,”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0. 2). ; 강순애, “初鑄甲寅字本『近思錄』과 관련 板本 研究,” 『書誌學研究』 제24집 (2002. 12).

(宗系辨誣)의 일로 아버지를 따라 명나라에 다녀와서 돈녕부참봉(敦寧府參奉)이 되었다.

학문적으로는 구봉, 율곡, 성혼의 영향을 함께 받았다. 하지만 예학(禮學) 분야는 송익필의 영향이 컸으며, 예학을 깊이 연구해 아들 집(集)에게 계승시켜 조선 예학의 태두로 예학과의 한 주류를 형성하였다.

저서로는 1583년 「상례비요(喪禮備要)」를 비롯하여, 「가례집람(家禮輯覽)」, 「전례문답(典禮問答)」, 「의례문해(疑禮問解)」 등이 있고, 「근사록석의」, 「경서변의(經書辨疑)」 등이 있다.

사계선생의 문집은 현재 3종이 전해지며, 판본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사계선생 문집 현황

구분	서명	권책수	발행년	광곽	어미	행자수	서문	소장처
丁卯 芸閣本	沙溪先生遺稿	합6冊	숙종 13 (1687)	四周 雙邊	內向2-3葉 花紋魚尾	10/20	乙丑(1685) …宋時烈序 : 丁卯(1687) …金壽恒序	규장각 奎 1670
壬子 改刻本	沙溪先生遺稿	합5冊	정조 16 (1792)	四周 雙邊	上黑魚尾	10/20	乙丑(1685) …宋時烈序 : 丁卯(1687) …金壽恒序	규장각 奎 4941
壬戌 新刊本	沙溪先生全書	합24冊	1922	四周 雙邊	上2葉花紋 魚尾	10/20		규장각 奎 15636

문집의 간행은 숙종 11년(1685) 경연에서 문원공(文元公)의 문집을 들여오라는 명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우암 송시열(宋時烈)이 유고(遺稿)와 수차(袖笥)를 수집·편찬하고, 김수항(金壽恒)이 서문을 붙여 바치었으며, 이후 김만기(金萬基), 김만중(金萬重) 형제의 교정을 거쳐 1687년 운각(芸閣)에서 목판본으로 간행된다. 원집 10권, 부록 3권 등 5책은 본집으로 구성되었고 이와 함께 별고(別稿)로서 「근사록석의」 14권 1책이 합쳐져 모두 6책으로 간행되었다.

임자개각본(壬子改刻本)은 사계의 8세손으로 정조 때 우의정을 지낸 근와(芹

窩) 김희(金熹)에 의하여 1792년에 간행된 것으로, 총 13권 5책이다. 운각본보다 자체(字體)가 정교하며 『근사록석의』를 뺀 순수 문집으로 이루어져 있고, 연보가 포함되어 있다.

후손들에 의하여 1922년에 간행된 임술신간본(壬戌新刊本)은 수찬한 책들 및 연보 등을 아울러 <사계전서(沙溪全書)>라 이름붙이고, 신독재(慎獨齋) 선생 전서와 함께 51권 24책으로 함께 간행되었다.<sup>3)</sup>

운각본과 임자개각본의 차이는 판심에서 알 수 있다. 어미가 내향2-3엽의 혼재된 어미를 취하고 있는 것은 『근사록석의』를 포함한 운각본이고, 상후어미를 취하는 것은 『근사록석의』를 제외시킨 임자 개각본이다. 『사계선생유고』에 별도로 포함된 『근사록석의』의 판본은 현재 몇몇 기관에 전해지고 있다.<sup>4)</sup>

사계 연보에 따르면, 선조 31년(1598) 가을 『근사록석의』를 완성했으며, 인조 7년(1629) 9월 정엽의 『근사록석의』의 서문을 지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사계가 오자교정을 한 시기는 1598년 이전이 될 것이며, 당시까지 나온 판본들을 비교하여 오자교정을 작성하였을 것이다. 또한 중화본을 근거로 오자교정을 작성하였으므로, 중화 청량서원본(1566) 『근사록』이 간행된 시점 이후가 될 것이다.<sup>5)</sup> 그러므로 『근사록오자교정』이 작성된 시기는 대략 1598년 이전에서 1566년 사이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운각본 『근사록석의』에 기록된 김장생의 문목(問目)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는 김장생이 정엽에게 보내는 편지로 1598년에 작성된 것이다. 이후에 편찬된 신간본 <사계전서>에도 『근사록석의』에 대한 서문이 실려 있는데, 내용은 비슷하다.

3) 한국문집총간 <사계전서> 해제 참고.

4) 현재 『근사록석의』가 포함된 운각본 『사계선생유고』 판본은 성암고서박물관(성암4-703), 규장각(奎1670), 장서각(K4-6084), 고려대 도서관(육당 C1 A6), 계명대 도서관(180.85-김장생기) 등에서 전해지고 있다.

5) 『근사록오자교정』에는 “以中和板校正”이라 하여, 중화판본을 기준으로 교정을 했다고 적혀있다.

나는 약관의 나이가 지나서야 처음 스승의 문하에서 「근사록」을 배웠는데, 반복해서 이를 읽었지만 결국 대의를 통달하지 못하여 있는 듯 없는 듯 30년을 지내 오면서 항상 마음에 부족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지난해 겨울부터 집에서 한가히 거처하면서 또다시 이를 읽어 보았지만 역시 의심이 없지 않기에, 이를 계기로 지난날 강론한 것들을 종이에 기록하여 의심난 것을 여쭙려고 하였으나 울곡이 세상을 떠나서 시비를 고정할 수가 없어, 갈 길을 잃고 외로이 단식할 뿐입니다. 또 퇴계가 문답한 것들을 기록하여 이를 합하여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 참고할 수 있게 하였으니, 내가 기록한 내용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지워 버리고 분명하지 못한 곳이 있으면 다른 말로 보완하여 뜻이 잘 풀리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sup>6)</sup>

이를 보면, 사계는 정엽에게 자신이 저술한 「근사록석의」의 내용 검토를 의뢰하고 있다. 그러나 정엽은 이를 완성하지 못한 채 인조 3년(1625) 병을 얻어 63세로 죽게 되고, 이후 이를 생질(甥姪)인 나만갑(羅萬甲)이 필사하여 김장생에게 보내게 된다. 이후에 송시열은 김장생으로부터 이 저술을 받아 체재를 잡고 교정을 하여 단행본의 형태로 현종 2년(1661)에 간행하게 된다.

단행본의 형태로 간행된 「근사록석의」의 판본은 무신자본과 목판본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1629년에 작성한 사계의 서문이 함께 전해진다.

지난날 나는 「근사록」을 읽으며 난해한 곳은 諸儒의 여러 학설을 인용하였다. 그 사이에 나의 의견을 덧붙여 하나의 책으로 만들고 時晦에게 바로잡아 주기를 청하였는데, 벌써 10여 년이 지났다.

올가을, 校理 羅萬甲이 海西로 귀양살이를 가게 되었는데, 장차 떠날때 정시회가 지은 「근사록석의」 4권을 부쳐 왔다. 나만갑은 정시회에게는 생질이 되는데, 정시회가 미처 깨끗이 베껴 쓰지 못한 것을 나만갑에게 부탁했기 때문이었다. 그 책은 程朱의 격언들을 조목마다 類에 따라 모아 놓고, 또 나의 말도 취하여 그 사이에 기록하였으니, 시회가 나를 믿는 마음이 독실하였음을 볼 수 있다. 한가한 사이에 한 번 읽어 보니 마치 그의 목소리를 접하는 듯 하였고 지난날 의심나던 부분이 얼음 녹듯이 풀렸다. 노년에 이런 책을 얻는다는 것은 참으로 큰 다행이다. 다만 그 가운데 간혹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니, 정시회가 살아 있을 때 평론하여 한 가지 뜻으로 귀결짓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sup>7)</sup>

6) 沙溪先生近思錄釋疑問目.

余年逾弱冠 始學是書于師門 反覆讀之 終不能通透 若存若亡 垂三十年 自居年冬 得家食閑 居復得以溫習而 仍記昔年所講論者 欲質于 高明 其所記有未瑩處 須加修潤 其全不是者 抹而去之 使之精約如何.

右告 守夢 鄭時晦 萬曆26年(1598)戊戌秋 沙溪病夫金長生 書于 黃州村舍.

따라서 운각본에 합치어진 『근사록석의』는 정업의 교정을 받고 나만갑으로부터 받은 원고를 판각하여 인출한 것으로 편찬시기는 대략 1566년-1598년의 시기로 추정된다. 또한, 현재 유통되는 단행본 『근사록석의』는 송시열에 의해 편집되어 무신자본과 목판본의 형태로 전해지고 있는데, 목판본은 1661년에 무신자본은 1708년에 각각 간행되었다.

### 3. 『근사록』의 현존본 및 교감저본

#### 3.1 현존판본

조사된 바에 따르면, 현전하는 『근사록』 판본은 금속활자본 6종과 목판본 13종으로 모두 19종이다. 세부 판본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 현존본 「근사록」 판본 현황

板種	刊行事項		板式事項			卷冊數	
	刊行處	刊行年	邊欄	行/字	魚尾		
元板鑿刻本	晉州	1370	左右雙邊	8/18	黑口；下向黑	14卷4冊	
木板本	成川府	[1796以前]	四周單邊	8/18	內向2葉花紋	14卷4冊	
初鑄甲寅字本	鑄字所	1436	四周雙邊	9/18	下向黑	14卷4冊	
初鑄甲寅字	甲	校書館	1519	四周雙邊	9/18	內向3葉花紋	14卷4冊
混入補字本	乙	校書館	[16C]	四周雙邊	9/18	內向3葉花紋	14卷4冊
初鑄甲寅字覆刻本	鳳城精舍	1519	四周雙邊	9/18	下向黑	14卷4冊	
初鑄甲寅字覆刻本	淸涼書院	1566	四周雙邊	9/18	下向黑	零本2冊	

7) 曩余讀近思錄 到難會處 引諸儒諸說 間附以己見 錄作一冊 請時晦刊正 已過十餘稔矣 今年秋 羅校理萬甲謫海西 將行 以時晦所撰釋疑四卷見寄 蓋羅於時晦爲甥 時晦未及淨寫 屬於羅君故也 程朱格言 逐條類聚 而亦取磬說 錄於其間 蓋見時晦相信之篤也 閑中一閱 怳若警咳之相接 而前日所疑 釋然氷解 老境得此 誠大幸也 第於其中 或有可疑者 恨未及時晦在世時評論歸一耳.

崇禎二年(1629)己巳重陽沙溪金長生 書.

板種	刊行事項		板式事項			卷冊數
	刊行處	刊行年	邊欄	行/字	魚尾	
初鑄甲寅字覆刻本	禮山縣	1578	四周單邊	9/18	內向黑-3葉花紋	14卷4冊
初鑄甲寅字覆刻本	估畢書院	1581	四周雙邊	9/18	內向3葉花紋	零本3冊
木板本	未詳	[16C]	四周雙邊	9/18	大黑口; 內向3葉花紋	14卷4冊
初鑄甲寅字覆刻本	未詳	[17C]	四周雙邊	9/18	下向黑-下向3葉	14卷2冊
戊申字本	校書館	1672	四周雙邊	10/17	內向2葉花紋	14卷4冊
戊申字覆刻本	校書館	1687	四周雙邊	10/17	內向2葉花紋	14卷4冊
戊申字混入補字本	校書館	1765	四周單邊	10/17	內向2葉花紋	零本2冊
壬辰字本	校書館	[18C末]	四周單邊	10/17	內向2葉花紋	14卷4冊
丁酉字混入補字本	校書館	[18C末]	四周雙邊	10/17	上2葉花紋	14卷4冊
戊申字覆刻本	三溪書院	1826	四周雙邊	10/17	內向2葉花紋	14卷4冊
木板本	玉山書院	[1778以前]	四周雙邊	10/18	內向2葉花紋	14卷4冊
木板本	文川郡	[16C中]	四周單邊	10/20	大黑口; 內向1葉花紋	14卷2冊
木板本	廣州府	1753	四周雙邊	10/20	上2葉花紋	14卷2冊

이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계통을 살펴보면, 1753년 광주에서 간행된 『근사록』<sup>8)</sup>을 제외한 나머지 18종이 섭체의 집해본으로 분석되었으며, 행자수 및 여러 판식상의 특징을 고찰한 결과 크게 초주갑인자 계통과 무신자 계통으로 나누어졌다. 특히, 초주갑인자 계통에는 금속활자본 3종과 목판본 6종이 포함되었으며, 금속활자본은 어미가 상하하향흑어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초주갑인자본과 어미의 모습이 내향3엽화문어미로 이루어진 초주갑인자 혼입보자본으로 구분되었다.<sup>9)</sup>

첫 번째 계통인 초주갑인자본 계통은 행자수가 9행18자로 이루어진 계열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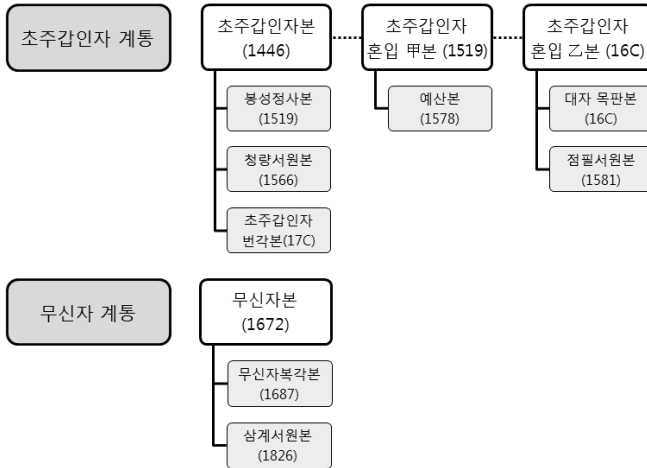
8) 홍계희(洪啓禧, 1703-1771)에 의해 간행된 판본으로 ‘廣州府刊小學近思錄 跋’과 ‘崇禎三癸酉(1753) … 廣州府留守 洪啓禧’의 간행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세주(細註)가 수록되어 있지 않고, 본문만 10행20자로 구성되어 있다.

9) 이 연구에서는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을 甲본과 乙본으로 세분하였다. 그 이유는 서로 같은 초주갑인자 혼입본의 모습을 취하고는 있지만, 자체의 모습과 어미 형태에서 상이한 점이 관찰되었고, 본문의 내용도 서로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을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연구자가 임의로 甲본과 乙본으로 지칭하였다.

6종의 번각본들이 이에 속한다. 이 6종을 어미 형태별 분류와 권미제의 위치 등에 근거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또다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① 금속활자본인 초주갑인자본을 저본으로 하여 번각된 목판본 3종,<sup>10)</sup> ②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을 저본으로 하여 번각된 목판본 3종<sup>11)</sup>이다.

두 번째로는 무신자 계통으로서 2종의 무신자 복각본들이 이에 해당한다. ① 금속활자본인 무신자 『근사록』 판본을 그대로 복각한 목판본과, ② 1826년 삼계서원에서 복각한 판본이 이에 속한다.

이를 계통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근사록 집해본 계통도

이 논문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판본은 1566년 중화에서 간행된 청량서원본이다. 사계는 『근사록오자교정』에서 이 판본을 중심으로 제 판본간의 차이를 교

10) 어미가 上下下向黑魚尾의 형태를 지닌 봉성정사본, 청량서원본, 간행시기미상의 초주갑인자번각본이 이에 해당한다.

11) 초주혼입 甲본을 저본으로 번각한 예산본과 초주혼입 乙본을 저본으로 간행한 대자 목판본, 점필서원본이 이에 해당한다.

감하였기 때문에 가장 기준이 되는 판본이다. 따라서 이 판본을 중심으로 다른 판본상에서 나타난 문자이동을 조사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sup>12)</sup>

### 3.2 교감저본

교감의 대상본은 연구자가 전문이 확인 가능한 판본을 선정하였으며, 8행18자본 1종, 9행18자본 8종, 10행17자본 1종을 대교본(對校本)으로 정하였다. 8행18자본은 고려본으로서 우리나라 판본의 시초가 된 원형이기 때문에 선정하였고, 9행18자본은 청량서원본과 같은 행자수를 가지고 있으므로 선정하였다. 10행17자본으로 재판된 무신자본은 사계가 오자교정을 작성한 이후 간행된 판본이며, 교감이 진행된 완전한 판본이기 때문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sup>13)</sup>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3> 교감 대상본

별칭	간행사항		판식사항		소장사항		
	간행처	간행년	행자수	어미	소장기관	소장권수	청구기호
고려본	晉州	1370	8/18	黑口; 上下下向黑	경북 봉화군	권1-14	보물 262호
초주갑인자본	鑄字所	1436	9/18	上下下向黑	개인소장본	권1-14	보물 1077-2호
초주혼입 甲본	校書館	1519	9/18	內向3葉花紋	경북 봉화군	권1-9	보물 896-8호
					규장각	권10-14	古貴 181.1-J868g
초주혼입 乙본	校書館	[16세기]	9/18	內向3葉花紋	동국대	권1-9	D 181.24 주98-74
					국중	권6-10	일산 貴 1517 4
봉성정사본	鳳城精舍	1519	9/18	上下下向黑	미 의회 도서관	권1-14	
청량서원본	淸涼書院	1566	9/18	上下下向黑	계명대	권6-14	(귀)180.85 주회근)
					규장각	권8-14	상백貴181.1346- J868gs)

12) 『근사록오자교정』이 수록된 면의 하단에 “以中和板本校正”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13) 이외에 간행이 된 판본들의 경우 실제 조사는 다 하였지만 대교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별칭	간행사항		판식사항		소장사항		
	간행처	간행년	행자수	어미	소장기관	소장권수	청구기호
예산본	禮山縣	1578	9/18	內向黑-3葉花紋	연세대	권1-14	연대 고서(우천) 130 0
접필서원본	估畢書院	1581	9/18	內向3葉花紋	고려대	권1-2, 6-14	고대 만송 C1 A79Q
대자 목판본	未詳	[16C]	9/18	大黑口; 內向3葉花紋	국중	권1-14	일산 貴 1571 5
초주갑인자 번각본	未詳	[17C]	9/18	上下下向黑- 上下下向3葉花紋	장서각	권1-14	C2 23
무신자본	校書館	1672	10/17	內向2葉花紋	경북 봉화군	권1-14	보물 896-15호

단, 사계가 기준으로 삼은 청량서원본의 경우 매우 희귀한 판본이어서 전문을 참고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 판본이 소장된 기관은 단 2곳에 불과하고, 권수도 완결본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본문 대교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 판본이 소장된 기관으로는 규장각<sup>14)</sup>과 계명대 도서관<sup>15)</sup>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계명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의 경우, 목록에 기술된 零本3册(권1-2, 권6-14) 중 권1-2에 해당하는 1책은, 연구자가 실사한 결과 어미가 내향흑어미 형태인 예산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량서원본의 경우 부득이 권1~권5까지의 원문은 전래본이 없는 관계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근사록오자교정」에 기록된 문구에 대해 원전의 문구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재 주석서로 출판된 책을 참고하여 내용을 비교하였다.<sup>16)</sup>

14) 零本1册(권8-14), 청구번호: 상백책181.1346-J868gs.

15) 零本3册(권1-2, 6-14), 청구번호: (귀)180.85 주희근.

16) 成百曉 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8); 章錫琛 點校, 『張載集』(北京: 中華西局出版, 1985); 程顥, 程頤, 『(四部刊要)二程集』(台北: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1984); 朱傑人, 嚴佐之, 劉永翔 主編, 『朱子全書』(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安徽教育出版社, 2002).

#### 4. 교감 분석

이 장에서는 사계가 교정한 『오자교정』과 실제 『근사록』 제 판본간의 문자이동을 분석하였다. 먼저, 사계가 기술한 『近思錄誤字校正』 41건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눈 후 해당부분의 원전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실제 『근사록』 집해본의 각 판본 상에 기록된 문자들과 사계가 언급한 부분에 해당하는 글자를 비교, 분석하였다.

교정유형에 따른 각 권별 오자교정의 항목 수는 다음과 같다.

<표 4> 오자교정 항목 수

	권1	권2	권3	권4	권5	권6	권7	권8	권9	권10	권11	권12	권13	권14	계
當作	1	1	1	1	1	2	3	1	2	2	2	3	3	2	25
疑作	1	3	-	-	-	-	1	1	-	-	1	-	-	1	8
他本作	-	3	2	1	-	-	-	-	1	-	1	-	2	1	11
계	3	7	3	2	1	2	4	2	3	2	4	3	5	4	44

사계가 지적한 오자 항목은 모두 44건이며, 當作유형(바뀌야한다), 疑作유형(의심난다), 他本作유형(타본과의 비교)의 세 가지로 구분되었다. 즉, 바뀌야한다는 유형과 의심난다는 유형은 사계가 직접 판단한 것이고, 타본과의 비교유형은 다른 판본과의 비교를 통해 문자의 상이함을 지적한 항목이다.<sup>17)</sup>

##### 4.1 當作 유형

當作유형은 사계가 바뀌야한다고 주장한 유형으로, 모두 25건이다. 이는 올바른 문자가 판각되었거나, 잘못 인용된 문자를 지적한 것이다. 사계의 주장

17) 『근사록오자교정』에 나타난 항목은 실제 41건의 항목이 적혀있다. 하지만 한 항목에 두 가지 유형을 수록한 경우가 2회 있었고, 세주로 표시된 오자교정 항목이 1회 있었기 때문에 전체 44건으로 파악하였다.

을 바탕으로 제판본과의 대교표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當作 유형 대교표

	校正	청량 서원 본 <sup>18)</sup>	고 려 본	초 주 본	초주 혼입 甲본	봉성 정사 본	예 산 본	초주 변각 본	초주 혼입 乙본	대자 목판 본	점필 서원 본 <sup>19)</sup>	무신 자본	비고
A1	眞→貞	결락	貞	貞	貞	眞	貞	眞	貞	貞	眞	眞	誤
A2	明→暘	결락	暘	暘	暘	暘	暘	暘	暘	暘	暘	暘	
A3	辯→辨	결락	辯	辯	辯	辯	辯	辯	辯	辯	결락	辯	
A4	妾→妄	결락	妄	妄	妄	妄	妄	妾	妄	妄	결락	妄	誤
A5	推→惟	결락	惟	惟	惟	惟	惟	推	惟	惟	결락	惟	誤
A6	六→九	六	六	六	六	六	六	六	九	九	六	九	誤
A7	常→嘗	常	常	常	常	常	常	常	常	常	常	常	
A8	王→正	王	正	正	正	王	正	正	正	正	正	正	誤
A9	從→存	從	從	從	從	從	從	從	從	從	從	從	
A10	言→吉	吉	吉	吉	吉	吉	吉	吉	吉	吉	吉	吉	
A11	而→噉而	而	而	而	而	而	而	而	噉而	噉而	噉而	噉而	添
A12	臣→巨	臣	巨	巨	巨	臣	臣	臣	巨	巨	臣	巨	誤
A13	簿→簿	簿	簿	簿	簿	簿	簿	簿	簿	簿	簿	簿	誤
A14	亻+灰→恢	亻+灰	恢	恢	恢	恢	恢	亻+灰	恢	恢	恢	恢	誤
A15	驅→軀	驅	驅	驅	驅	驅	驅	驅	軀	軀	軀	軀	誤
A16	大→小	大	大	大	大	大	大	大	大	大	大	大	
A17	明→教	明	明	明	明	教	明	明	明	明	明	明	誤
A18	辯→辨	辯	辯	辯	辯	辯	辯	辯	辯	辨	辯	辨	誤
A19	九→六	九	九	九	九	九	九	九	九	九	九	六	誤
A20	六→九	六	六	六	六	六	六	六	九	九	九	九	誤
A21	仁...義 → 義...仁	仁... 義	仁... 義	仁... 義	仁... 義	仁... 義	仁... 義	仁... 義	仁... 義	仁... 義	仁... 義	仁... 義	
A22	辯→辨	辯	辯	辯	辯	辯	辯	辯	辯	辯	辯	辯	誤
A23	不→一	不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誤
A24	辨→辯	辨	辨	辨	辨	辨	辨	辨	辨	辯	辨	辯	誤
A25	辨→辯	辨	辨	辨	辨	辨	辨	辨	辨	辨	辨	辯	誤

18) 청량서원본의 A1에서 A5까지의 항목은 현재 기관에 전해지지 않는 결본이다. 그리하여 부득이 이번 조사에는 누락되었다.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

19) 점필서원본의 경우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유일하게 전해지고 있지만, 권3-5가 결질인 관계로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계는 총 25건의 항목에서 문자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분석 결과, 사계의 주장과는 다르게 몇몇 항목에서는 문자의 변화가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문자의 이동이 보이는 경우와 문자의 이동이 보이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4.1.1 문자의 이동이 보이는 경우

A1) ‘性之眞’의 ‘眞’자는 ‘貞’자로 써야 한다.<sup>20)</sup> 고려본과 초주갑인자본은 정(貞)으로 판각되었다. 사계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까닭은 청량서원본에 진(眞)으로 판각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사계는 초주갑인자본과는 달리 청량서원본에 ‘眞’으로 판각되었으니 초주갑인자본과 마찬가지로 ‘貞’을 써야 함을 지적하였지만, 해석상 이 구절은 ‘靜은 誠의 회복이며 性의 참이다’는 뜻으로 ‘眞’{참 진}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sup>21)</sup>

A4) ‘輕妾而不敦篤’의 ‘妾’자는 ‘妄’자로 써야 한다.<sup>22)</sup> ‘妾’{아내 첩}과 ‘妄’{망령될 망}은 전혀 다른 뜻이므로, 해석상 ‘妾’자는 옳바르지 않다. 이후의 판본인 초주번각본만이 ‘妾’으로 쓰인 것으로 보아 청량서원본과 초주번각본의 세주(細註)를 판각할 때 단순오각된 것으로 판단된다.

A5) ‘亦推損過’의 ‘推’자는 ‘惟’자로 써야 한다. 청량서원본은 결질이지만, 사계의 주장으로 보아 ‘推’로 판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해석상 ‘推’{밀다}와 ‘惟’{오직}의 뜻도 통하지 않으므로 ‘推’를 ‘惟’로 오각한 경우이다.<sup>23)</sup>

A6) ‘師卦六二’의 ‘六’자는 ‘九’자로 써야 한다.<sup>24)</sup> 이는 <師卦> 爻辭를 설명한 것으로서 ‘九二’를 ‘六二’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전을 살펴보면, 『周易』

20) 性之眞 眞字 當作貞 / 1-4後-3-註6(표기방법은 먼저 오자교정 항목의 내용을 그대로 기술하고, 슬래시 표기(/) 다음에 해당 글자의 위치를 표기하였다. 위치 순서는 卷-張-行-字數이고, 세주일 경우는 註를 붙였다.)

21) … 然 靜者 誠之復而 性之眞也 ….

22) 輕妾而不敦篤 妾字 當作妄 / 4-21前-8-註13.

23) 亦推損過 推字 當作惟 / 5-5前-8-註2.

24) 師卦六二 六字 當作九 / 6-1前-9-註4.

師卦 九二爻에 수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고려본 역시 ‘六二’로 쓰인 것으로 보아, 고려본의 오각 혹은 고려본의 저본에서 부터 오각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초주혼입 乙본부터 교정이 되었다.

A8) ‘小有可王’의 ‘王’자는 ‘正’자로 써야 한다.<sup>25)</sup> 이는 자체가 유사하여 발생된 단순 판각오류로서 봉성정사본과 청량서원본에서만 오각되었다.

A11) ‘噬嗑而何之’의 ‘而’자 위에는 ‘噬’자가 있어야 한다.<sup>26)</sup> 이 부분에서 사계는 탈자를 지적하였다. 이 구절은 ‘턱사이에 사물이 있는 것이 서합이니, 합치어 사이를 제거하는 것이다.’<sup>27)</sup>는 뜻으로 {씹는다, 합치다}는 의미의 ‘噬’를 한번 더 써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초주혼입 乙본부터 첨자가 되어 무신자본까지 이어졌다.

A12) ‘試以一二臣’의 ‘臣’자는 ‘巨’자로 써야 한다.<sup>28)</sup> 이 구절의 출처인 『程氏遺書』의 원문을 살펴보면 ‘巨’로 표기되어 있다. 청량서원본, 봉성정사본, 예산본, 초주번각본, 점필서원본에서 오각되어 있다. 판본의 전승과정에서 자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A13) ‘文法薄書’의 ‘薄’자는 ‘簿’자로 써야 한다.<sup>29)</sup> 이는 청량서원본에서만 오류가 발생한 부분으로 단순 판각오류이다. 초주본을 저본으로 번각할 때 자체가 비슷하여 오각된 것이다. 출처의 원문 또한 ‘簿’로 기록되어 있다.

A14) ‘ㄷ+灰含洪之義’의 ‘ㄷ+灰’자는 ‘恢’자로 써야 한다.<sup>30)</sup> 이는 ‘恢’를 판각할 때 {마음 심} 변이 아니라 {사람 인} 변을 쓴 오류이다. 청량서원본과 초주번각본에서 오각되었다.

A15) ‘六尺之驅’의 ‘驅’자는 ‘驅’자로 써야 한다.<sup>31)</sup> 이는 ‘驅’({말물 구})를 ‘驅’({몸 구})로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驅’는 앞으로 나아가다는 뜻에서 ‘驅’와 유사한 뜻을

25) 小有可王 王字 當作正 / 7-3後-6-註6.

26) 噬嗑而何之 而字上當有噬 / 8-6後-6-註7.

27) 頤中有物曰 噬嗑 [噬]而合之 所以去間也.

28) 試以一二臣 臣字 當作巨 / 9-9後-2-14.

29) 文法薄書 薄字 當作簿 / 9-12後-1-16.

30) ㄷ+灰含洪之義 ㄷ+灰字 當作恢 / 10-7前-2-註9.

31) 六尺之驅 驅字 當作驅 / 10-14-後-7-17.

가지고 있지만, 이 문장에서는 ‘六尺之軀’ 즉 육척의 몸이란 뜻을 갖고 있으므로, 명사로 쓰인 것이다. 따라서 고려본 이래로 초주훈일 乙本에서 고쳐지기 전까지의 ‘驅’는 오류이다. 원문의 출처인 『程氏遺書』에서도 ‘軀’로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17) ‘聖人之明’의 ‘明’자는 ‘教’자로 써야 한다.<sup>32)</sup> 이 구절은 ‘성인의 밝음은, 마치 포정이 소를 잡는 것과 같다<sup>33)</sup>로 성인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있다. 해석상 ‘教’가 적합할 것으로 보이지만, 원문의 출처인 『張子語錄』에는 ‘明’으로 판단되어 있고, 봉성정사본에서만 ‘教’로 판단된 것으로 보아 사계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A18) ‘能辯之早’의 ‘辯’자는 ‘辨’자로 써야 한다.<sup>34)</sup> 이 구절은 ‘분별하기를 능히 일찍 하고 떠나기를 속히 한다<sup>35)</sup>’는 뜻으로 쓰였다. 따라서 판단의 의미를 가진 ‘辨’이 더 적합하다. 고려본 이래로 ‘辯’을 쓰다가 대자목판본과 무신자본에서 올바르게 ‘辨’으로 교정되었다. 원문의 출처인 『周易』 <豫卦>에도 ‘辨’으로 쓰였다.

A19) ‘上九之迷復’의 ‘九’자는 ‘六’자로 써야 한다.<sup>36)</sup> ‘迷復’은 『周易』 復卦의 ‘上六’에 나오는 것이므로 ‘上九’는 오류이다. 고려본 이래로 모두 잘못되어 내려오다가 문천본과 무신자본에 교정이 되었다. 대교본인 무신자본에서도 세보(洗補)가 되어 교정글자를 덧 텐 것으로 보아 무신자본을 간행할 당시까지도 오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A20) ‘兌卦六五’의 ‘六’자는 ‘九’자로 써야 한다.<sup>37)</sup> 이는 A6)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잘못된 출처의 표기이다.兌卦의 ‘六五’가 ‘九五’로 표기되었는데, 고려본부터 그대로 전승되었다. 초주본에서는 ‘九二’로 후인이 덧필하였고, 무신자본에서 세보의 흔적도 남아있다.

32) 聖人之明 明字 當作教 / 11-7後-8-15.

33) 聖人之明 直若庖丁之解牛.

34) 能辯之早 辯字 當作辨 / 12-1後-7-12.

35) 而能辯之早 去之速也.

36) 上九之迷復 九字 當作六 / 12-2後-6-註8.

37) 兌卦六五 六字 當作九 / 12-4後-6-註7.

A23) ‘天人不致’의 ‘不’자는 ‘一’자로 써야한다.<sup>38)</sup> 이는 청량서원본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으로 단순 오각이다.

A24) ‘孟子儘雄辯’의 ‘辯’자는 ‘辯’자로 써야 한다.<sup>39)</sup> 이 항목 역시 ‘辯’자를 지적하는 경우로 A16)의 사례와 같다. 구문을 살펴보면, ‘맹자는 웅변가였다(孟子儘雄辯)’는 뜻으로 쓰여 ‘辯’{말잘할 변}을 쓰는 것이 적합할 듯하다. 다른 판본을 조사해 보니 A16)과 마찬가지로 대자목판본과 무신자본에서 교정이 되었다. 원문의 출처인 『程氏遺書』에도 ‘辯’으로 쓰였다.

A25) ‘葉註’의 ‘辯’자 또한 잘못된 것이다.<sup>40)</sup> 이는 섭체가 A24) 구절에 주해를 단 것으로 ‘辯’을 써야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무신자본에서 교정되었다.

#### 4.1.2 문자의 이동이 보이지 않는 경우

문자의 이동이 보이지 않는 항목은 8건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사계가 문맥의 의미에 따라 다른 글자를 써야한다고 주장을 하였지만, 실제 판본상의 변동이 없는 경우이다.

A2) ‘寒暑雨明’의 ‘明’자는 ‘陽’자로 써야 한다.<sup>41)</sup> 이 항목은 청량서원본이 결결이어서 확인이 불가하지만, 이외의 다른 판본들에는 모두 ‘陽’으로 쓰였다. 출처인 『주역(周易)』 함괘(咸卦)의 구사효(九四爻)에도 ‘寒暑雨陽’으로 쓰였다. 따라서 청량서원본에만 오각이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

A3) ‘物怪不須辯’의 ‘辯’자는 ‘辨’자로 써야 한다.<sup>42)</sup> 이 구문은, ‘괴이한 것들을 굳이 분별할 필요도 없고 이단을 반드시 공격할 필요도 없다’<sup>43)</sup>로 괴이함을 분별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지만 ‘辯’{말잘할 변}이 판각되었다. 따라

38) 天人不致 不字 當作一 / 13-8後-3-註12.

39) 孟子儘雄辯 辯字 當作辯 / 14-2前-9-3.

40) 葉註 辯字 亦誤 / 14-2後-1-註1.

41) 寒暑雨明 明字 當作陽 / 2-10後-2-2.

42) 物怪不須辯 辯字 當作辨 / 3-7前-6-17.

43) 物怪不須辯 異端不必功.

서 이 부분은 사계의 주장과 같이 ‘辨’{분별할 변}이 더 적합하다. 원문의 출처인 『장재집』에서도 ‘辨’으로 조사되었지만 다른 판본에서는 바뀌지 않은채 ‘辯’자로 쓰여 있다.

한편, 송각본 『영재근사록연주(泳齋近思錄衍註)』와 원각명수본, 고려본 『近思錄』을 살펴본 결과 모두 ‘辯’으로 판각되어 있었다.<sup>44)</sup>

A7) ‘飲食常置 常食絮羹’의 두 ‘常’자는 모두 ‘嘗’자로 써야 한다.<sup>45)</sup> 원문을 살펴보면, ‘絮’{간 맞출 처}를 사용하여 “음식을 먹을 때는 항상 곁에 앉아 국에 간을 맞추거나 하면 꾸짖어 못하게 하였다.”<sup>46)</sup>는 문장이다. 우리나라의 판본에는 모두 ‘常’{항상 상}이 두 번 쓰였지만, 해석상 ‘常置之坐側’은 {항상}을 뜻하는 ‘常’이, ‘嘗食絮羹’는 ‘嘗’{맛볼 상}자가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원문의 출처인 『程氏文集』에도 ‘常置’, ‘嘗食’을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의 판본은 고려본을 따라 모두 ‘常’으로 이어 전해졌다.

A9) ‘志未有所從’의 ‘從’자는 ‘存’자로 써야 한다.<sup>47)</sup> 이 구절은 『周易』 中孚卦의 初九 象傳에 ‘뜻이 따르는 바가 없다(志未有所從)’고 하여 從(따를 중)을 쓴 것이 문제이다. 출처의 원문을 찾아보면 ‘志未有所存’으로 되어있지만, 우리나라의 판본은 고려본을 따라 모두 ‘從’으로 이어 전해졌다.

A10) ‘是以言也’의 ‘言’자는 ‘吉’자로 써야 한다.<sup>48)</sup> 사계는 ‘言’으로 적힌 판본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지만, 우리나라의 판본에서는 ‘吉’로 올바르게 쓰였다. 사계의 주장처럼 ‘言’자가 쓰인 판본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또한 해석상 ‘言’이 들어갈 위치도 아니다. 따라서 ‘言’이 기록된 판본은 지금까지 현존되지 않는 판본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 단, 사계가 이 오자교정을 작성한 시기는 임란 직후이므로 임란 이전에 판각된 『근사록』 판본들 가운데 현존하지 않고 있는 판본, 즉 합천본에

44) 『泳齋近思錄衍註』는 송나라 양백암(楊伯壘)에 의해 주해된 저술로 현존하는 『근사록』 주석서 중 가장 이른 간본에 속한다. 원각명수본과 함께 현재 중국국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45) 飲食常置 常食絮羹 二常字 皆作嘗 / 6-7前-6-7.

46) 飲食常置之坐側 常食絮羹 卽叱止之.

47) 志未有所從 從字 當作存 / 7-7後-3-7.

48) 是以言也 言字 當作吉 / 7-7後-1-註9.

‘言’자가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해석상 ‘吉’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A16) ‘大學之法’의 ‘大’자는 ‘小’자로 써야 한다.<sup>49)</sup> 이 항목의 경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판본에서는 모두 ‘大’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원전인 『예기』를 찾아본 결과 ‘小’로 기록되어 있다.

A21) ‘疑於仁 疑於義’의 ‘仁義’ 두 글자는 바꾸어야 한다.<sup>50)</sup> 이 구절이 사계가 섭체의 집해에 대해 크게 잘못되었다고 한 부분이다. 원구절을 살펴보면 ‘양씨는 자신을 위하니 인과 유사하고, 목씨는 겸하여 사랑하니 의와 유사하다.’<sup>51)</sup>고 하며, 양씨에 ‘仁’을 목씨에 ‘義’을 연결하고 있다.

이 구절에 대해 사계는 『근사록석의』의 세주에서 말하기를, 이 문장은 『맹자(孟子)』 호변장(好辯章)에 자세하니 그곳의 주를 따라 ‘仁’과 ‘義’ 두 글자를 마땅히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양주와 목적에 관해서는 『맹자』 <등문공>편에 자세한데,<sup>52)</sup> 여기서 사계는 양주는 자신만을 위하니 군신간의 의가 없고, 목적은 부자의 인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따라서 양주가 자신만을 위하고, 의가 없으니 의가 의심이 되고, 목적은父子간의 인이 없으므로 당연히 인이 의심간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원문장의 출처인 『정씨유서』와 양백암의 송각본 『영재근사록 연주』에는 ‘疑於仁 疑於義’로 인출된 것으로 보아, 이 구절에 대한 사계의 의견을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A22) ‘辯異端’의 ‘辯’자는 ‘辨’자로 써야 한다.<sup>53)</sup> 이 구절은 섭체가 주해한 부분으로 ‘이것은 실로 이단을 분별하는 방법이다’<sup>54)</sup> 라고 결론삼고 있다. 사계는 ‘辨’자를 ‘辯’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지만 우리나라의 판본에는 모두 ‘辯’으로 판각되었다. 해석상 (분별하다)는 의미를 가진 ‘辨’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49) 大學之法 大字 當作小 / 11-1後-5-9.

50) 疑於仁疑於義 仁義 二字 換之 / 13-1前-7-15.

51) 楊氏爲我 疑於仁 墨氏兼愛 疑於義.

52) 『孟子』 <滕文公 下>. 楊氏 爲我 是無君也 墨氏 兼愛 是無父也(양씨는 자신만을 위하니 군주가 없는 것이고, 목씨는 똑같이 사랑하니 아버지가 없는 것이다).

53) 辯異端 辯字 當作辨 / 13-6後-1-註2.

54) 此實辯異端之要領也.

이것으로, 사계가 밝힌 當作 유형은 모두 25건으로 조사되었으며, 대교 결과 문자의 이동이 있는 18건과 문자의 이동이 없는 7건으로 구분되었다. 이렇게 오자가 나타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경우로 구분된다.

첫째,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고려본에 기록된 문자가 그대로 전승이 된 경우이다. 고려본 이래로 같은 글자가 무비판적으로 전승되어 사계가 이를 지적한 것이다. 판본 분석 결과, A6 · A11 · A15 · A18 · A19 · A20 · A24 · A25의 유형이 이에 해당되어 교감이 이루어졌지만, A7 · A9 · A16 · A22의 유형은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청량서원본을 판각할 당시 오자가 생긴 경우이다. 분석 결과, A2 · A4 · A5 · A8 · A12 · A13 · A14 · A23의 유형이 이에 해당되었고, 이후의 판본에서는 적합한 문자가 사용되었다. 단, A1의 유형은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사계가 문맥의 흐름상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한 경우이다. A3 · A17 · A21의 유형이 이에 해당되지만, 이후 판본에서의 전체적인 교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장 이른 판본인 고려본과 교감이 이루어진 무신자본 사이에 일어난 문자변화를 살펴보면, A6 · A11 · A15 · A19 · A20 · A24의 경우에 글자의 형태가 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초주훈입 乙본과 대자목판본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초주훈입 乙본과 대자목판본 사이의 판본적인 연관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자체의 변화가 가장 많이 일어난 판본으로는 대자목판본으로, 모두 6번의 변화가 있었다.

## 4.2 疑作 유형

疑作유형은 의심난다는 유형으로, 모두 8건이다. 역시 문자의 이동이 보이는 6건과 이동이 보이지 않는 2건으로 나누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疑作 유형 대교표

	校正	청량서원본	고려본	초주본	초주혼입甲	봉정사본	예산본	초주변각본	초주혼입乙	대자목판본	접필서원본	무신자본	비고
B1	義→物	결락	義	義	義	義	義	義	物	物	物	物	誤
B2	須→始	결락	須	須	須	須	須	須	始	始	始	始	誤
B3	橫→擴	결락	擴	擴	擴	擴	擴	擴	擴	擴	擴	擴	
B4	治→洽	결락	治	洽	洽	洽	洽	洽	洽	洽	洽	洽	誤
B5	齟→齟	齟	齟	齟	齟	齟	齟	齟	齟	齟	齟	齟	誤
B6	何→合	何	合	合	合	合	合	合	合	合	合	合	誤
B7	辨→辯	辨	辨	辨	辨	辨	辨	辨	辨	辯	辨	辨	誤
B8	四→六	四	四	四	四	四	四	四	四	四	四	四	

#### 4.2.1 문자의 이동이 보이는 경우

B1) ‘在義爲理’의 ‘義’자는 ‘物’자인 듯하다.<sup>55)</sup> 비록 청량서원본에는 결락이 되었지만 고려본과 초주갑인자본을 미루어 보아 ‘義’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출처를 살펴보니, 『정씨유서』에서도 마찬가지로 ‘義’로 쓰여졌다.<sup>56)</sup> 이 구절은 ‘하늘에 있으면 명이라 하고, 사물에 있으면 리라 하며, 사람에게 있으면 성이라 하며…’<sup>57)</sup>로 해석되므로 사계는 리(理)를 표현하기에 문맥상 ‘義’보다는 ‘物’이 옳다고 주장한 것으로 여겨진다. 초주혼입 乙본에서 교정되어 무신자본까지 쓰여졌다.

B2) ‘大做脚須得’의 ‘須’자는 ‘始’자인 듯하다.<sup>58)</sup> 출처인 정씨유서에는 ‘須’로 기록되어 있다.<sup>59)</sup> 이 구절은 ‘반드시 기초를 크게 해야 비로소 얻을 수 있다’<sup>60)</sup>는 의미로 {비로소}의 뜻을 가진 ‘始’가 올바르다. 일찍이 진영첩의 『근사록상주집평

55) 在義爲理 義字 疑作物 / 1-20後-3-13.

56) 『二程集』 河南程氏遺書, 권18, 204.

57) 在天爲命 在物爲理 在人爲性.

58) 大做脚須得 須字 疑作始 / 2-15前-5-2.

59) 『二程集』 河南程氏遺書, 권2上, 33.

60) 須大做脚須得.

(近思錄常主集平)』<sup>61)</sup>에도 ‘中文本에는 始를, 日本本에는 方을 쓰고 있다고 하며, 『정씨유서』 원문에는 須로 쓰였으니 반드시 誤記이다<sup>62)</sup>』라고 하였다. 이 또한 초주혼입 乙本에서 교정되어 무신자본까지 쓰였다.

B4) ‘不徒務博治’의 ‘治’자는 ‘洽’자인 듯하다.<sup>63)</sup> 이는 ‘洽’과 ‘治’의 자양이 비슷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해석은 ‘널리 기록하는데에만 힘써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널리를 의미하는 ‘洽’이 적절하다. 청량서원본에 ‘治’로 기록되어 사계가 이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B5) ‘齷齪之見’의 ‘齷’자는 ‘齹’자인 듯하다.<sup>64)</sup> {악착스럽다}는 뜻에 해당하는 ‘齷齪’을 고려본을 포함한 초주갑인자본, 초주혼입 甲本, 청량서원본, 봉성정사본에는 ‘齷齪’로 기록되어 있다. 해석상 사계가 지적한 ‘齷齪’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려본에서 잘못 판각된 글자를 그대로 판각한 채 전해 내려오는 것을 사계가 지적한 것이다.

B6) ‘噬嗑而何之’의 ‘何’자는 ‘合’자인 듯하다.<sup>65)</sup> 이는 다른 판본 모두 ‘合’으로 인출되었지만, 청량서원본에만 ‘何’로 쓰여 사계가 지적한 것이다. 청량서원본의 판각상 오류이다.

B7) ‘衆口辨言’의 ‘辨’자는 ‘辯’자인 듯하다.<sup>66)</sup> 고려본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판본에 ‘辨’으로 쓰였지만 해석상 ‘辯’이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원문을 살펴보면, “만일 행동에 미리 하지 않는다면 차츰 성장하게 되면, 사사로운 뜻과 편협된 기호가 안에서 생겨나고, 못사람들의 말들이 바깥에서 스며들어 순수하고 완전해 지려 하여도 가히 얻을 수 없다”<sup>67)</sup> 는 뜻으로 {판단}과 {분별}을 의미하는 ‘辨’ 대신 ‘辯’{말씀 변}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이정문집』에도 ‘辯’으로 기록되어 있다.

61) 中文各本用 ‘始’, 日文各本用 ‘方’ 遺書原文用 ‘須’ 則必誤.

62) 陳榮捷, 『近思錄詳註集評』(臺北: 學生書局, 1992).

63) 不徒務博治 治字 疑作洽 / 2-40後-1-註18.

64) 齷齪之見 齷字 疑作齹 / 7-14後-9-註12.

65) 噬嗑而何之 何字 疑作合 / 8-6後-6-註9.

66) 衆口辨言 辨字 疑作辯 / 11-2前-1-10.

67) 若爲之不豫 及乎稍長 私意偏好 生於內 衆口辨言 鑠於外 欲其純完 不可得也.

#### 4.2.2 문자의 이동이 보이지 않는 경우

B3) ‘橫充之則大’의 ‘橫’자는 ‘擴’자인 듯하다.<sup>68)</sup> 이 항목은 비슷한 자체로 인한 판각오류로서 원문의 출처인 『장재집(張載集)』에도 ‘擴’으로 쓰여 있고,<sup>69)</sup> 다른 판본들 모두 ‘擴’으로 새겨진 것으로 보아 청량서원본에서만 나타나는 단순 판각 오류이다.

B8) ‘孝悌說見第四’의 ‘四’자는 ‘六’자인 듯하다.<sup>70)</sup> 이는 孝와 悌에 관한 내용이 『근사록』 제4권이 아닌 제6권에 수록되어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원 구절을 살펴 보면 ‘효와 제에 관한 설명은 제4권에 보인다.’<sup>71)</sup>라고 하였으니, 『근사록』 권4에 수록된 ‘存養’편을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사계는 권4의 ‘存養’편 보다는 권6의 ‘家道’편에 더 적합한 것으로 여겨 이를 지적한 것이다.

이것으로, 사계가 밝힌 疑作 유형은 모두 8건으로 조사되었으며, 대교 결과 문자의 이동이 있는 6건과 문자의 이동이 없는 2건으로 구분되었다. 이렇게 오자가 나타난 이유로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경우로 구분된다.

첫째, 고려본에 기록된 문자가 그대로 전승된 경우이다. 판본 분석 결과, B1·B2·B4·B5의 유형이 이에 해당되며, 이후 판본에서 교감이 되었다.

둘째, 청량서원본에만 오자가 생긴 경우이다. 분석 결과, B3·B6의 유형이 이에 해당되었고, 이후 판본에서 교감이 되었다.

셋째, 문맥의 흐름상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한 경우이다. 분석 결과, B8의 유형이 이에 해당하였지만, 실제 교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當作 유형과 마찬가지로, 초주훈입 乙본과 대자목판본에서 교감이 많이 이루어졌음을 관찰할 수 있다. 해당되는 글자는 B1·B2·B4·B5이다. 자체의 변화가 가장 많이 일어난 판본으로는 초주훈입 乙본이며, 교감이 시작된 판본이라고 할 수 있다.

68) 橫充之則大 橫字 疑作擴 / 2-39後-7-10.

69) 『張載集』 性理拾遺, 375.

70) 孝悌說見第四 四字 疑作六 / 14-7後-2-註16.

71) 孝悌說見第四卷.

### 4.3 他本作 유형

他本作유형은 중화 청량서원본을 비롯한 다른 판본과 비교한 유형으로, 모두 11건이다.

<표 7> 他本作 유형 대교표

	校正	청량 서원 본	고 려 본	초 주 본	초주 혼입 甲	봉성 정사 본	예 산 본	초주 번각 본	초주 혼입 乙	대자 목관 본	점필 서원 본	무신 자본	비고
C1	擴：廓	결락	擴	擴	擴	擴	擴	擴	廓	廓	廓	擴	誤
C2	蔽：弊	결락	蔽	蔽	蔽	蔽	蔽	蔽	蔽	弊	蔽	弊	誤
C3	是：足	결락	足	足	足	足	足	是	足	足	足	足	誤
C4	石：又	결락	石	石	又	又	石	又	石	石	결락	又	誤
C5	有：在	결락	在	在	在	在	在	在	在	在	결락	在	
C6	效：較	결락	效	效	效	效	效	效	較	較	결락	較	誤
C7	古：古者	古	古	古	古	古	古	古	古者	古者	古者	古者	添
C8	與：如	如	如	如	如	如	如	如	如	與	如	如	誤
C9	政：假	政	政	政	政	政	政	政	政	假	政	政	誤
C10	致：理	致	致	致	致	致	致	致	致	致	致	致	
C11	夫：天	天	夫	夫	夫	夫	天	夫	天	夫	天	天	誤

#### 4.3.1 문자의 이동이 보이는 경우

C1) ‘擴然而大公’의 ‘擴’자는 다른 본에 ‘廓’자로 쓰였다.<sup>72)</sup> 이는 ‘擴’자가 다른 판본에는 ‘廓’으로 쓰였음을 지적한 것으로, 원전 출처에는 ‘廓’으로 쓰였다.<sup>73)</sup> 두 글자 모두 {크다}는 뜻으로 해석상 의미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초주혼입乙본, 점필서원본, 대자목관본, 문천본에는 ‘廓’으로 쓰여 있고, 이외의 다른 판본들에는 ‘擴’으로 쓰였다.

72) 擴然而大公 擴字 佗本作廓 / 2-5後-1-12.

73) 『二程集』, 460.

C2) ‘買櫝還珠之蔽’의 ‘蔽’자는 다른 본에 ‘弊’자로 쓰였다.<sup>74)</sup> 본문을 살펴보면 ‘매독환주<sup>75)</sup>의 폐단이 있다’는 뜻으로 쓰이므로 ‘弊’가 적합하다. 그러나 청량서원 본을 포함한 고려본, 초주갑인자본, 초주혼입 甲本, 乙本 모두 ‘蔽’로 쓰여 있고, 대자목판본만 ‘弊’로 쓰였다. 따라서 사계가 지적한 다른 판본은 대자목판본으로 보여 진다.

C3) ‘豈是以見道’의 ‘是’자는 다른 본에 ‘足’자로 쓰였다.<sup>76)</sup> 사계가 지적한 ‘是’자는 청량서원본과 초주번각본을 제외하고 모두 ‘足’으로 쓰였다. 이는 해석의 문제 보다는 판본에 인출된 글자체가 비슷하여 생겨진 오류로 보인다.

C4) ‘石曰古人’의 ‘石’자는 다른 본에는 ‘又’자로 쓰였다.<sup>77)</sup> 이 문장은 『정씨외서』 12편에 있는 내용으로 ‘石曰’이 아니라 ‘又曰’로 기재되어 있다. 해석상 또 “말하기를…”의 의미이므로 ‘又’가 적합하다. 초주혼입 甲本, 봉성정사본, 초주갑인자본 각본, 성천본, 무신자본에 ‘又’로 올바르게 쓰였다.

C6) ‘無期必計效’의 ‘效’자는 다른 본에 ‘較’자로 쓰였다.<sup>78)</sup> 사계가 지적한 ‘較’는 초주혼입 乙本과 대자목판본에서 관찰되었다. 또한 무신자본에는 ‘效’를 洗補하여 ‘較’로 쓰였다.

C7) ‘古者聖王’의 ‘者’자는 다른 본에는 간혹 없으니 옳지 않다.<sup>79)</sup> 사계가 지적한 ‘者’의 경우, 연구자가 가장 주목한 부분이다. 대상 교감 글자본 중에 가장 찾기가 쉬운 위치인 권9의 앞부분에 수록되어 있어 비교가 가장 쉬웠기 때문이다. 권9의 첫문장은 “염계선생이 말하기를, 옛 성왕은 예법을 제정하여…”<sup>80)</sup>로 해석된다.

하지만 판본을 살펴보니, 사계가 지적한 ‘者’의 경우 고려본을 비롯한 초주갑인자본, 초주혼입 甲本, 봉성정사본, 청량서원본 모두 ‘者’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

74) 買櫝還珠之蔽 蔽字 佗本作弊 / 2-12前-9-6.

75) 옥을 포장하기 위해 만든 나무상자를 사고 그 속의 옥은 돌려 준다는 뜻으로, 겉포장에 현혹되어 정말 중요한 것을 잃는다는 의미이다.

76) 豈是以見道 是字 佗本作足 / 2-41前-6-註10.

77) 石曰古人 石字 佗本作又 / 3-15後-1-17.

78) 無期必計效 效字 佗本作較 / 4-11前-1-註1.

79) 古者聖王 者字 佗本或無非是 / 9-1前-4-7.

80) 濂溪先生曰 古者聖王 制禮法.

고, 초주혼입 乙本, 점필서원본, 대자목판본, 성천본, 문천본, 무신자본에는 모두 ‘者’가 수록되어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C7의 경우와 같이 초주혼입 乙本부터 이후의 판본까지 똑같이 글자가 수정된 경우가 A6·A11·A15·A20·B2·B5·C6의 경우에도 관찰된다는 점이다. 이는 초주혼입 乙本부터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가장 명확한 단서이다.

C8) ‘與今人歌曲’의 ‘與’자는 다른 본에 ‘如’자로 쓰였다.<sup>81)</sup> 사계가 지적한 ‘與’의 경우, 청량서원본에서는 ‘如’로 쓰였음이 관찰되었다. 오히려 사계는 ‘與字 佗本作如’로 쓸 것이 아니라 ‘如字 佗本作與’로 써야 했을 것이다. 이 구절의 원문은 “옛사람의 시는 지금사람들의 가곡과 같이 일반적으로 여겼다”<sup>82)</sup>는 뜻으로 ‘如’와 ‘與’ 모두 뜻이 통한다. 판본상에는 대자목판본과 성천본, 문천본을 제외하고 모두 ‘如’로 쓰였음이 관찰되었고, 따라서 사계가 지적한 다른 본은 대자목판본임을 알 수 있다.

C9) ‘政使有’의 ‘政’자는 다른 본에 ‘假’자로 쓰였다.<sup>83)</sup> 사계가 지적한 ‘政’을 살펴본 결과, 대자목판본과 성천본, 문천본을 제외한 모든 판본에서 ‘假’로 쓰여졌다. 따라서 C8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계가 지적한 다른 본은 대자목판본임을 알 수 있다.

C11) ‘又無夫子主盟’의 ‘夫’자는 다른 본에 ‘天’으로 쓰였다.<sup>84)</sup> 이 구절의 원문은 “대개 전국시대에는 세상의 도가 더욱 쇠하고, 이단이 더욱 성하였다. 또한 천자가 그 위에서 회맹을 주도하지 못하였다.”<sup>85)</sup>는 뜻으로, 사계는 ‘天子’와 ‘夫子’로 판본상에 기록되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판본상에는 고려본을 비롯하여, 초주갑인자본, 초주혼입 甲, 乙本, 예산본, 점필서원본에만 ‘夫’로 인출되었고, 나머지 판본에서는 ‘天’으로 인출되었다. 해석상으로는 ‘天子’가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81) 與今人歌曲 與字 佗本作如 / 11-6前-5-9.

82) 古人於詩 如今人歌曲一般.

83) 政使有 政字 佗本作假 / 13-4前-1-註6.

84) 又無夫子主盟 夫字 佗本作天 / 14-2前-2-註16.

85) 蓋亦全國時代熾 世道益衰 異端益熾 又無天子 主盟於其上.

### 4.3.2 문자의 이동이 보이지 않는 경우

C5) ‘蓋有於微辭’의 ‘有’자는 다른 본에 ‘在’자로 쓰였다.<sup>86)</sup> 사계가 지적한 ‘有’자의 경우 청량서원본을 제외한 다른 판본에는 모두 ‘在’로 쓰였음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청량서원본만 ‘有’로 잘못 판각된 것으로 보인다.

C10) ‘天人不致’의 ‘致’자는 다른 본에 ‘理’자로 쓰였다.<sup>87)</sup> 사계가 지적한 위치의 ‘致’자를 확인한 결과, 청량서원본을 포함한 모든 판본이 모두 ‘致’로 올바르게 쓰여져 있었다. 아마도 A10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는 합천본에 ‘理’자로 오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이것으로, 사계가 밝힌 他本作 유형은 모두 11건으로 조사되었다. 판본 분석 결과, 사계가 언급한 다른 본은 초주대자목판본을 지칭한 경우로 판단되며, C1·C2·C3·C5·C6·C7·C9·C11 에서 관찰되었다.

자체의 변화가 가장 많이 일어난 판본으로는 대자목판본으로, 모두 7번의 변화가 있었다.

## 5. 결론

이상 사계 김장생이 교감 작성한 『근사록오자교정』과 『근사록』 제판본상에서 대교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첫째, 사계가 『근사록오자교정』을 통해 지적한 항목은 모두 44건으로, 當作 유형 25건, 疑作 유형 8건, 他本作 유형 11건으로 나누어졌다.

둘째, 제판본을 통한 대교결과 사계가 지적한 44건 중 31건의 오자와 2건의 첨자가 발견되었고, 11건에서는 문자의 이동이 없었다.

86) 蓋有於微辭 有字 佗本作在 / 3-23前-4-註14.

87) 天人不致 致字 佗本作理 / 13-8後-3-註12.

셋째, 기존 「근사록」 집해본의 판본 계통을 형태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초주갑인자계통과 무신자계통으로 구분되었다. 초주갑인자 계통은 세부적으로 금속활자본 3종과 목판본 6종으로 구분되었고, 무신자 계통은 금속활자본 1종과 목판본 2종으로 구분되었다.

넷째, 사계가 지적한 當作유형과 疑作유형을 분석한 결과 오자가 생긴 이유로, ① 고려본 이래로 판본이 무비판적으로 전승되어 오자가 생겨난 경우, ② 청량서원본에 오각이 발생하여 오자가 생긴 경우, ③ 사계가 생각하기에 문맥의 흐름상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여 교정한 경우 등으로 구분되었다.

다섯째, 다른 판본과 비교하여 오자의 교정이 많이 이루어진 판본은 초주훈입 乙본, 초주대자목판본, 점필서원본으로 다른 초주갑인자 계통의 판본과 비교하여 볼 때, 교감의 흔적이 많이 발견되었다. 이는 판본 간행에 저본이 되었거나 또는 상호 참고적인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 3가지의 판본은 앞서 살펴본 다른 판본들과의 계통이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사계의 「근사록오자교정」을 중심으로 대교본을 통해 오자를 검토한 결과, ① 고려본-초주갑인자본-초주훈입 甲본-봉성정사본-예산본의 흐름과, ② 초주훈입 乙본-점필서원본-대자목판본의 두 가지 흐름으로 크게 나뉘어 졌다. 이러한 현상은 형태적으로 분석된 판본 계통과도 같은 흐름으로서, 대교의 방법을 통하여 더욱 증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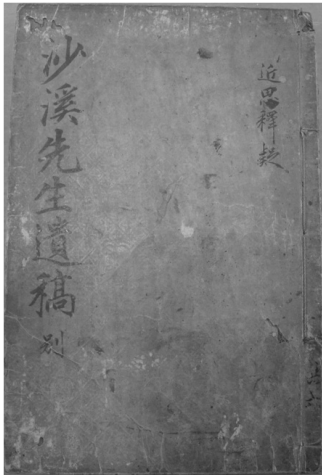
이 연구는 사계 김장생이 「근사록」을 대상으로 교감한 「근사록오자교정」을 토대로 현존 판본을 통해 재차 교감을 실시한 연구이다. 향후 「근사록」의 한글 번역본을 발행할 때 참고 및 반영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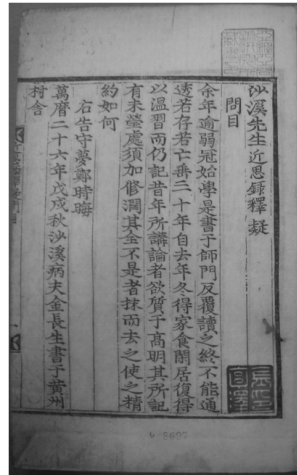
- 강순애. “初鑄甲寅字本 『近思錄』과 관련 版本 研究.” 『書誌學研究』 24(2002). 161-189.
- 朴文烈, 金東煥. “高麗本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의 校勘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37(2007). 221-252.
- 朴文烈. “『同盟錄』의 校勘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34(2006). 37-61.
- 朴元燾. “崔溥 『漂海錄』 校勘記.” 『書誌學報』 27(2003). 21-44.
- 裴賢淑. “『七政算』 內外篇의 字句異同.” 『書誌學研究』 3(1988). 165-208.
- 裴賢淑. “鮮初 三朝實錄 校勘記.” 『圖書館』 41(6)(1986). 67-100.
- 成百曉 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8.
- 송일기. “敦煌寫本 『父母恩重經』의 校勘學的 研究.” 『書誌學研究』 35(2006). 145-181.
- 송일기, 안현주. “睡隱 姜沆 編撰 『看羊錄』의 校勘 研究.” 『書誌學報』 33(2006). 5-30.
- 송일기. “益山 王宮塔 『金紙金剛寫經』의 文獻學的 接近.” 『書誌學研究』 24(2002). 131-159.
- 宋熹準. “『近思錄』의 도입과 이해.” 『韓國學論集』 第二十五輯(1998). 131-145.
- 宋熹準. “朝鮮朝 『近思錄』 註釋書의 史的 展開.” 『漢文學研究』 第十三輯(1998). 171-217.
- 우정훈. “『近思錄』 集解本の 板本 研究.” 碩士學位論文. 中央大學校 文獻情報學科. 2010.
- 우정훈, 송일기. “葉采의 『近思錄』 集解本 板本考.” 『書誌學報』 第36號(2010). 223-259.
- 柳富鉉.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文字異同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권 3호(2003). 259-275.
- 柳富鉉. “『童蒙先習』 異本の 文字異同 研究.” 『書誌學研究』 15(1998). 77-102.

- 柳富鉉. “『三國遺事』의 校勘學的 研究: 諸板本の 對校를 中心으로.” 博士學位 論文. 中央大學校 文獻情報學科. 1993.
- 柳富鉉. “『三國遺史』 王歷 校勘考 - 諸板本の 對校를 中心으로 -.” 『史學研究』 43, 44(1992). 59-116.
- 柳富鉉. “『三國遺事』 ‘卷二’에 대한 書誌學的 考察 - 傳存本の 對校를 中心으로 -.” 『東方學志』 76(1992). 23-73.
- 이광호 역주. 『근사록집해』. 서울: 아카넷, 2004.
- 章錫琛 點校. 『張載集』. 北京: 中華西局出版, 1985.
- 程顥, 程頤. 『(四部刊要)二程集』. 台北: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1984.
- 朱傑人, 嚴佐之, 劉永翔 主編. 『朱子全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安徽教育出版社,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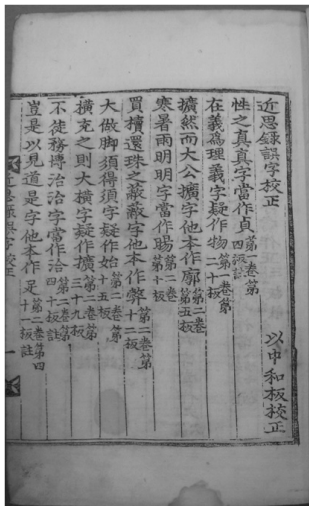
<부록> 윤각본 『사계선생유고』 『근사록석의』 (고려대 도서관 소장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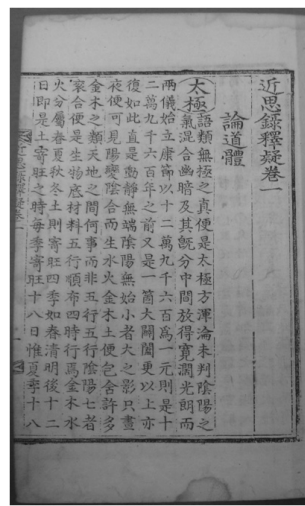
<그림 2> 표제지



<그림 3> 문목



<그림 4> 「근사록오자교정」



<그림 5> 「근사록석의」 권수면